



기쁨과 희망!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니

앉아서 기다리는 자에게 기회가 찾아오진 않는다. 스스로 기회를 만들고 찾아나서는 사람에게만 손을 내미는 것이 바로 기회다. 그런데 우리가 갈망하는 행복과 기쁨, 희망도 마찬가지다. 마냥 앉아서 기다린다고 시나브로 행복해지는 건 아니다. 기쁨도, 희망도 모두 스스로 찾고 만들어나가는 것이다. 이 평범한 진리를 아는 사람이 드물다.

의지는 환경을 극복해 내는 힘

17세기 스페인의 유명한 철학자 발타자르 그라시안은 “세상은 당신의 의지에 따라 그 모습이 변한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절망하고 어떤 사람은 여유 있는 마음으로 행복을 즐긴다.”라고 했다. 19세기 미국의 저명한 철학자 R.W. 에머슨도 “사람이 사람다울 수 있는 힘은 그의 의지에 있는 것이지, 재능이나 이해력에 있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재능이 많고 이해력이 풍부하더라도, 실천력이 없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의지가 운명을 만든다.”라고도 했다. 세기를 가로질러 두 철학자가 공통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상황보다 그 사람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

불교의 가르침도 이와 다르지 않다. 불교에서 불행은 자신이 만든 것이며 어리석은 마음으로 인해 일어난다고 한다. 행복과 불행은 모두 스스로 만드는 것이라는 얘기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의지를 갖고 어떻게 마음먹고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근심거리를 안고 불행하게 사느냐, 즐겁고 행복하게 사느냐 하는 것이 달려 있다.



의지는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려는 인간의 의식적인 노력을 뜻한다. 지성과 감정의 복합체인 의지는 행위를 통해 실현되기 마련이다. 사람을 가로막는 것은 절망적인 환경이 아니라 미리부터 포기해 버리는 나의 '의지 없음'이다. 뒤집어 생각하면, 사람을 나아가게 하는 것도 나를 둘러싼 환경이 아니라 나의 '충만한 의지'라고 할 수 있다.

의지로 환경을 극복해낸 예는 무수히 많다. 생존율이 채 절반도 되지 않은 난치병 고환암을 극복하고 프랑스로를 일주하는 사이클 경기에서 무려 일곱 번이나 우승하는 쾌거를 이룬 랜스 암스트롱은 "내가 암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마법의 약을 복용해서가 아니라 나를 수 있다는 신념과 살 수 있다는 의지 때문이었다."라고 밝혔다.

작가인 빅터 프랭클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한다. 유대인 포로수용소 아우슈비츠에 있을 때 그는 수감자들을 보면서 누구보다 체력이 뛰어나고 민첩하게 살아가는 요령을 터득한 사람들이 가장 오래 살아남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은 놀랍게도 겉보기에 나약하고 어수룩해보여도 붉은 놀의 장엄함과 동료의 흥얼거리는 노랫소리에 감사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최악의 조건에서도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었던 것은 절망적인 환경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의지와 노력으로 기쁨을 찾고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처럼 기쁨과 희망이 보이지 않는 환경 속에서 찾는 기쁨과 희망이야말로 참된 것이 아닐까.

기쁨과 희망도 훈련을 하자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의 화두는 단연 행복과 기쁨, 희망이다. 하루가 멀다 하고 '행복' 관련 서적들이 쏟아지고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행복하기를 소망하며, 또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밤낮없이 분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신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이유는 바로 스스로 찾지 않기 때문이다. 기쁨이나 희망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자연스럽게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끊임 없이 자신의 사고방식과 생활습관을 변화시키는 훈련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의지를 갖고 기쁨을 찾는다면, 희망을 갈망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기쁘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마음을 열고 주위를 한 번 돌아보자. 어느 만화 속 주인공처럼, 이른바 '기쁨찾기놀이'를 해보는 건 어떨까. 해맑은 어린아이의 미소, 피약벌 아래 시원하게 부는 한 줄기 바람, 열심히 일한 뒤 휴가계획을 세우는 것까지, 모두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일 수 있다. 기분이 울적한 날 함께 술잔을 기울일 동료가 있다는 것도, 괴롭고 힘들 때 기댈 친구가 있다는 것도, 혹은 우리가 건강한 몸을 갖고 있다는 것도 모두 기뻐해야 할 일이고 행복하게 느껴야 할 일일 것이다.

어린 시절, 소풍의 백미는 뭐니 뭐니 해도 보물 찾기였다. 선생님이 꼭꼭 숨긴 보물을 찾았을 때의 그 기쁨은 찾아본 사람만이 누리는 특권이다. 보물이 뭐여도 상관없다. 보물을 찾으러 다니는 과정이 재밌고 찾았다는 사실이 더 기쁜 법이다.

희망을 찾으려는 노력, 기쁨을 찾으려는 의지. 그것이면 이미 희망을 찾았고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매순간 보물찾기에 나서자. 희망은 이것을 갈망하여 추구하는 사람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는 법이다.

